

사사 사무엘과 아들들

사무엘상 7:15 - 8:3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공의로운 사무엘입니다. 두번째는 그의 아들들로, 돈에 정신이 팔려 뇌물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사사 요엘과 아비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행동, 다른 평가, 다른 인생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사람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재판할 때 돈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냈기에, 더 좋은 부모에서 났기에 더 나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성막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에 비해 요엘과 아비야는 좋은 것을 받으며 부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렇게 성장 환경은 요엘과 아비야가 더 나은 삶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더 좋은 사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부모는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선택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어진 환경과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어떤 미래를 살게 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앞에 정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분명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이 과거를 넘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